산업재해 예방대책인

임선숙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충남북지역본부
사내기자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교육, 전문화교육, 법정직무교육,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등 다양한 산업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 최근에 진행된 대전충남북지역본부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과정을 소개한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노동자를 참여 시켜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 ·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나아가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은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위험성평가가 산업재해 예방대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이수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한 관리감독자 교육이 해당 시간만큼 인정된다. 또한 소속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 점수(사업주 관심도 항목)에 반영된다.

이날 진행된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은 위험성평가를 실제로 진행할 수 있도록 前노동부 감독관으로 활동했던 고형덕 강사의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을 시작으로 '위험성평가 제도 개요',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및 작성 실습' 등으로 이루어졌다. 교육을 마치고 돌아가는 교육생의 후기를 들어보자.

● 수강생 인터뷰 ●

지에프퍼멘텍 최형준 관리감독자

현장에서 꼭 필요한 교육이기에 이틀간, 하루 8시간씩(총 16시간) 받는 일정이어도 참석하게 됐습니다. 평소에도 이런 교육은 신뢰성 높은 곳에서 받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방문한 보건관리대행 간호사의 추천으로 대한산업보건협회 관리감독자교육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첫인상이 좋아야 하잖아요(웃음). 일단 교육 시설의 인테리어도 괜찮았고 강의실도 깔끔해서 교육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교육을 들어보니 역시 제 선택이 탁월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강사님들도 모두 고수 중의 고수더군요. 어려울 수 있는 내용도 바로바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특히 실습시간은 실무에 적용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법정의무교육은 조금 지루한 감이 없지 않은데 긴 시간이 지루해지지 않게 재밌게 구성해주어 다른 교육생들도 감사한 마음으로 들었을 것 같아요.

내년에도 다시 수강하려고 합니다.